**주님의 교회 Ⅱ - 릭 조이너**

 ****

 † 주님의 교회 Ⅱ - 릭 조이너

토요일, 02 유월 2007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와 별 관계가 없다고 성도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다고 해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험 때문에, 다시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교회가 가까이에 없다고 느끼게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곳에 살게 되는 이유는 거주지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보다는 다른 조건들을 보고 결정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살지 결정할 때 최우선 순위를 두고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잘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현대 시대 교회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외 모든 것을 돌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가능한

많이 축복하시겠지만, 우리 삶이 그분의 최선이자 최고인 목표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살 지역을 잘 결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회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했던 것과 그 실상이 너무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이상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계속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며, 그 부르심을 향해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동감 있고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 하나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심지어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면,

이 말은 곧 교회공동체가 자라가야 할 영역이 남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에 안주해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만 전심을 쏟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차지도 덥지도 않아 주님께 책망 받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뱉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시록 3:16절을 보세요)

모든 교회와 조직에서 리더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실 때 먼저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 이곳에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셨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쉽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리더쉽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쉽이 성숙하기 원한다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사 전체를 볼 때,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성령 하나님의 리더쉽을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1500년경 이후에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백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그전 40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큽니다.

바로 개혁(Reformation)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Reformation)을 통해 교회가 다시 형성(re-formation)되었습니다.

이같이 교회 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교회가 성령 세례를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백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교회 개혁의 진행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지난 오백 년간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 년의 세월이 필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은 하루에 다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교회 개혁에 남은 모든 일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산통이 더 심해지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거대한 교회 개혁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무척 흥미진진하겠지만 그 마지막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처리속도가 빨라질수록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따라서 더 고된 일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틱 교회나 오순절 교회 정도만 교회 개혁의 최첨단에 서있는 듯하고,

그 외 교회들은 마치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오래된 교회들은 정말 성장이 멈춰있거나 심지어 교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톨릭과 정교회, 많은 고교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한 많은 카리스마틱 교회와 오순절 교회, 각 교파와 신앙운동들이 그 성장을 멈춘 채

과거의 열매를 따먹는데 만족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D.1세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했던 사도 중 하나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14절에

위와 같은 태도를 향해 너무나도 분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어찌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빌0307. 그러나 내개 득이 되었던 무엇들이든지,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제미아:상해,손해,손실,손상)로 여겼느니라.

빌0308. 뿐만 아니라, 의심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主)를 숙지함의 탁월함에

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단지 손해(제미아:상해,손해,손실,손상)로 여기느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겪었으며(제미오오:해치다,상해를 입다,잃다), 그것들을

단지 분(糞)으로 여기노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며①,

빌0309. 그리고 법에서 비롯되는 내 자신의 '법적 깨끗함'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인 그것과,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법적

깨끗함'을 가지고서, 그분 안에서 발견될 것이며②,

빌0310. 그분의 사망에까지 같은 모양으로 되어서, 내가 그분을, 그분 부활의 권능(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을, 그분 고난들에의 같이하기(코이노니아: 동료의식,

참석, 상호교류,교제,공동체)를 알 것이니라③,

빌0311.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면 좋으련만!

빌0312. 마치 내가 이미 도달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붙잡혔던 그것을 나 역시 붙잡을까 하여, 내가

좇아가느니라.

빌0313. 형제들아, 내 자신이 붙잡았다고 내가 여기지 않느니라, 대신에 뒤에 있는 그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들의 것들에로 손을 앞으로 뻗치면서(에페크테이노마이:

손을 앞으로 뻗치다, 뻗다), 이 한가지 것을 내가 하느니라.

빌0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높은(아노:위로,꼭대기에,위에, 가장자리에, 높이,

위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賞, 브라베이온:중재의 상급,공중오락의 상, 상급,보상)을 위한

과녁(표적,목표)을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가느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그것도 교회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한 바울이 지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을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평생에 이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을 향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교회, 신앙운동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겸손함과 배우려는 열린 마음, 영적인 갈급함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따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우리가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11 유월 2007

지난 주에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바울이 말했던 자세, 즉 주님 안에서 계속 성숙해 가기

위해 필요한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신실한 사역자 중 하나였던 바울 스스로가 그 생의 마지막에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을 추구하게 하는

‘주를 향한 갈급함’입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음식을 먹고, 목마른 사람만이 물을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기도제목입니다.

그 주림과 목마름으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게 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위한 불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끌어내려는 이 세상의 유한한 일과 고민에 속아서

거기에 주저앉아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불로써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것과 옛것, 잘 갖추어진 것에 대한 우리 태도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주님은

마1352.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왕국에게로 가르침을

받은[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 (타동사)제자를 만들다, 학자로 등록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제자가 되다] 낱낱의 서기관(필경사, 율법사)은 집주인인 자와 같으니,

그가 자기의 보화들 중에서 새롭고 오래된 것들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서 새것과 옛것을 함께 내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비전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필요한 새 포도주도 있으며, 동시에 오래 익은 훌륭한

포도주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대한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살펴 보시는 주님의 시각은 교회라는 하나의 큰 그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모임들과 같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다양성과

개인차는 교회에 매우 필요합니다.

옛것과 새것이 모두 필요하며, 예언자와 교사, 목사와 사도, 전도자적 교회와 그런 움직임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비전을 가지고 제한된 시선에 갇혀 있으면, 이런 차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님의 몸은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살아있고, 번창하며 창조적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온전한 비전을 갖는 것은 주님의 몸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부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몸과 그에 속한 지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몸 전체와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두가지(two visions) 비전이 있는 곳에 분열(di-vision)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짧은 소견에 갇혀있다면

주님의 몸으로부터 분리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무리 속에서 함께 먹고 생활하지 않는 양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교회나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교단도 점점 병약해지고 결국 그리스도 몸과의

교제를 상실한 채 죽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30절 말씀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전1129. 이는 걸맞지(어울리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에게의 천벌(天罰)을 먹고 마심이라.

고전1130. 이 까닭으로 많은 이들이 너희 중에서 약하고 병에 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잠자느니라.

우리가 몸을 제대로 분변치 못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채 약해지고, 질병, 죽음에 이르는 중요

이유입니다.

영적 모임에 참석하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착각에 빠져,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제(Communion)란 공동의(Common)의 연합(Union)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몸 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 잘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잘 분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망이나 상처, 또는 ‘교회는 어때야 한다’는 이상주의와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색안경을 끼고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심각한 문제나 이단에 빠졌던 교회나 신앙운동들은 대개 전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어린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처럼 달려듭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는 잡기 쉬운 먹이를 공격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것보다는, 지겨운 교회일지라도 차라리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영적인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실상 위험에 처해있으며,

머지 않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면서 자기들의 태도에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은 스스로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단체에 이같은 고립주의적 영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성향을 고칠 수 없다면, ‘아마도’ 그 모임을 떠나서 건강한 교제가 살아있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라고 말한 이유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모든 원칙을 뛰어

넘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더 머물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모임을 자유케 하실 수도 있으며, 아니면, 최소한 씨앗이라도 뿌려서

다른 이들이 와서 물을 뿌리고 자라도록 할 터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 잃은 자들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으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그 사역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 사역에 무언가 열매가 좀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은 그 정반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삐뚤어져 나간 양을 끌어다가 무리에 들여놓기 위해 애쓰고 계실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반적인 생활과 활동,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를

양무리로 이끌기 위해 보이시는 관심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과연 양무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특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몇주간 동안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전한 성도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속한 모임과

신앙 운동들이 온전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종교의 영(Religious Spirit)’을 유발하는 완벽주의와 이상주의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해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만 붙어있는다면,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이상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주의는 인본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과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평가해, 그 함량에 미달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전을 이용해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고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서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잠0418. 그러나 적법한 자의 길은 비추는 빛과 같으니,

그것이 완전한 낮까지 점점 더 많이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제 길에 서있다면, 우리 매일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우리는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제대로 서있는지는 빛이 밝아지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에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교만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만이 더욱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겸손이 더해갑니다.

이 같은 성숙한 겸손이 위대한 사도바울의 간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던 바울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 중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중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이 자라가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지체 안의 다른 이들에게 배울 마음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의 친목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진정한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된 교회를 작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요일, 13 유월 2007

지난 몇 주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두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새것과 옛것- 즉 전통적인 교회와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앙운동-

모두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장년층을 위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각 계층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 교회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열매일 것입니다.

두번째 필요한 요소로는 개교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와 맺는 건강한 교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특징은 교회가 건강한 영적성숙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나 신앙 운동이 정체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주님은 다수의 대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 70인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셨고, 이후에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3단계로 세분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구도자 중심’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초점은 초신자나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구도자 중심의 교회들이 양적인 면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앙면에서 미성숙한 성도들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예배의 깊이나 성경적인 제자도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도자 교회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교회들은 자기 위치에서 성공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가르침과 사역을 위한 준비, 그리고 보다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이런 구도자 중심의 교회를 떠나 보다 헌신된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도자 중심 교회에서도 매우 견고하며 깊이

 있고 철저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우, 깊이 있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돕기에, 구도자 중심 교회가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도자 중심교회와 달리, 깊이 있는 영성과 신앙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초신자들에게 위협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이런 교회에는 가장 헌신되고 깊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외침이 아니라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찾아 가고,

그 속에서 놀라운 경험 통해 얻는 신앙 성숙의 정도는,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습니다.

위에 설명한 두가지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 스타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반화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라면, 위의 두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속성을 모두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다루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은 주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존재 목적 단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교회라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일까요?

사람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온전하신 주님의 사역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주일날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 심령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교회생활이라고 하면 주 7일, 하루 24시간을 모두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건물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만나는지에 따라 교회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실제 잠재력을 무참히 격하시켜버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광대한 것입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이런 건물이나 프로그램 안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형태에 제한된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능력 있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거하실 구체적인 장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은 이스라엘 캠프 가운데서 항상 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으며, 또한

이동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처는 주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둘러 있었습니다. 옆의 다른 길에 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주님께서 거하셨던 성경 속의 성소는

세 곳에서 시작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대중을 위한 야외 마당과

제사장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 성소,

그리고 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즉 주님이 실재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청사진처럼 주어졌기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세단계의 사역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구도자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길로 자라가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깊이가 얕고 체질이 허약한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가는 일에만 전심을 쏟는 헌신된 신앙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자기 우물 안에 갇혀 교만해지고,

결국 교회에 주님을 모시기보다는 오히려 몰아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큰 취약점 중 하나는

교회가 목회자나 설교자 한 명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리더이자 설교가이셨던 주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조차,

그 제자들이 사역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훈련시키시고,

그 이후에 대중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분의 제자라면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따를 것입니다.

바로 단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비시켜서 스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역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12사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리더로 보였지만,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를 그 리더쉽으로 인정했고,

12명 모두 실제로 리더쉽에 참여하였습니다.

리더쉽은 곧 12명에서 늘어나 사도와 장로그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도 세웠습니다. 그 집사 중 최소 두 명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사역은 그 시대 사도에 필적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모든 믿는 자들 역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와 신앙운동의 참된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개개인의 강건함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사람들을 미성숙하게 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이 리더쉽들은 반드시 에베소서 4장의 명령과 같이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몇 해 전, 주님께서 예언적 환상을 통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목자와 사역자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그 위치에서 내리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사역은 단지 일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 일하도록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들 중에서 이제 겨우 몇 가지만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반드시 다루어야합니다.

이 지구 상에서 천국을 보이지 않고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에서 키워낸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 세대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